

‘거꾸로콘덴싱보일러, 소비자 서비스 차원에서 제작된 보일러’

지난달 25일에 열린 ‘2007 하우징브랜드페어’ 전시회는 귀뚜라미보일러 대리점 사장들에게 있어 홈시스마트를 선전할 수 있는 홍보의 장이었다.

귀뚜라미 본사에서 홈시스마트 홍보를 위해 15명 정도의 대리점 사장들을 전시장에 투입해 전시장내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상담코너를 신설한 것.

하루 상담건수는 1인당 40~50여명. 총 600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대리점 사장들은 귀뜸한다.

이덕분에 각기 속한 지역에서만 영업활동을 벌여왔던 대리점 사장들에게는 각지의 고객들에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특히 신축시장을 겨냥한 신제품과 저당식 방식의 저가형 콘덴싱보일러가 선보여 관람객들의 관심도가 최고조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종로구에 홈시스마트 21호점을 오픈한 종로 홈시스마트 이석정 대표는 이번 전시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없는 신제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축시장을 타깃으로 한 신제품 월드5000보일러가 선보여 건축업계 관련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며 “그동안 신축시장에서 저가경쟁으로 제품 자체를 판매하지 않았던 귀뚜라미가 신축시장에 맞는 보일러를 생산해 올해 신축시장 구도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귀뚜라미측이 선보인 월드5000 가스보일러는 순간식의 순간가열 능력과 저당식의 풍부한 온수량을 하나로 합친 귀뚜라미식 보일러다. 즉 저당식 보일러의 장점과 순간식 보일러의 장점만 채택했다.

이석정 사장은 귀뚜라미내에서는 저가에 해당되는 이 보일러는 같은급의 타사보일러와 비교할 때 가격은 조금 세지만 제품 품질면에서는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와 함께 귀뚜라미식의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일반 콘덴싱보일러의 단점을 최대 보완한 콘덴싱보일러 시



장에 돌풍을 예고할 만한 제품”이라며 “귀뚜라미만의 콘덴싱 기술인 니켈브레이징 일체형 콘덴싱 열교환기를 사용해 수명이 오래가고 응축수 배출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올해 5월에 출시예정인 고효율 순간식 ‘거꾸로콘덴싱 가스보일러’는 개보수 시장을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타사의 콘덴싱보일러에 비해 5~10%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찾아올 거꾸로콘덴싱 보일러는 55°C 이하의 난방수 사용시에 가장 연료가 적게 들어 87% 이상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어 온돌방보다는 서구식 라지에이터나 펜코일유니트를 사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에 사용하는 보일러다.

이석정 사장은 “거꾸로 콘덴싱보일러는 귀뚜라미보일러가 판매이익을 내기 위해 제작된 보일러라기보다는 소비자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저렴하게 콘덴싱보일러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차원에서 양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요즘처럼 건설경기 불황으로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다각도로 영업마케팅을 펼치기 좋은 제품들이 선보여 대리점 입장으로서는 크게 기대가 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강한 기대심리를 보였다.